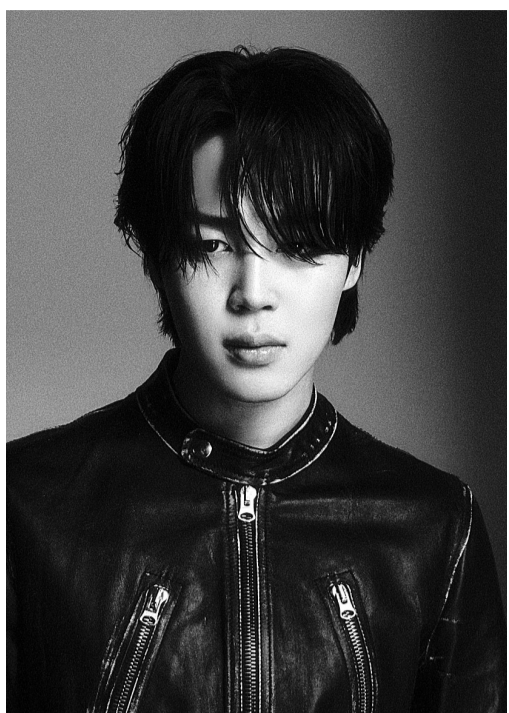


# BTS 지민, K팝 솔로 첫 '핫100' 1위

(빌보드 메인 싱글)

솔로음반 '라이크 크레이지'  
그룹·솔로 모두 1위 고지 올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8위 진입



지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이 솔로 음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로 K팝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지민은 개인으로나 그룹으로나 모두 '핫 100' 1위 고지를 밟은 최초의 K팝 가수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빌보드는 4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싱글 차트 상위 10개 곡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민은 팝스타 마이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Flowers),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컨트리 가수 모건 윌렌의 '라스트 나이트'(Last Night) 등 경쟁한 노래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전까지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한 K팝 가수는 솔로와 그룹을 모두 합쳐 방탄소년단이 유일했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필두로 2021년 '마이 유니버스'까지 총 6곡의 '핫 100' 1위곡을 보유하고 있다.

K팝 솔로 가수 가운데 '핫 100' 차트에서 종전 최고 순위는 싸이다. 2012년 글로벌 열풍을 불러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빌보드 '핫 100'은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횟수,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 순위가 산출된다. '라이크 크레이지'는 순위 집계 기간이었던 지난달 24~30일 다운로드와 CD 싱글을 합해 25만4000에 해당하는 판매량(세일즈·Sales)을 기록했다. 스트리밍은 1000만회에 달했고, 라디오 방송 횟수는 6만4000명이었다.

'라이크 크레이지'는 지민의 첫 공식 솔로 음반 '페이스'(FACE)의 타이틀곡이다. 이 노래는 신스팝 장르로 강렬한 신시사이저·드럼 사운드에 귀에 감기는 지민의 애절한 음색이 대조를 이룬다. 지민은 평소 좋아하던 동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곡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라이크 크레이지'는 앞서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꺾이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8위로 진입한 바 있다. 지민은 4일 오전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기에 되게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며 "실감이 잘 안 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 다 방탄이라서 가능한 것이고, 아미(방탄소년단 팬)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며 "그것을 절대 모르지 않는다. 아미 여러분이 방탄을 얼마나 기다려 주고 계신지 더 느끼게 됐다. 감사드리고 고맙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또 "팀(방탄소년단)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그룹에 대한 애착도 숨기지 않았다. 멤버들도 잇따라 축하의 메시지를 건넸다. 팀 리더 RM은 지민에게 전화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제이홉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다. 형이 다 눈물이 난다"고 축하했다. 슈가 역시 "박지민 빌보드 '핫 100' 1위 가수 너무 멋있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 박진현의 문화카페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홍콩, 그리고 서울.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얼핏보면 볼거리가 많은 관광도시나 문화도시 같다. 하지만 놀라지 마시라.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도시(Art Capitals)들이다. 지난해 10월 '하늘을 날아오는 특급호텔'로 불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항공기운영사 '비스타젯'(VistaJet)이 갤러리·미술관 수, 미술이벤트(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구글평점을 토대로 선정한 '세계 10대 미술도시'에 이름을 올린 곳이다. 서울은 갤러리 116개·미술관 9개로 6위, 홍콩은 갤러리 73개·미술관 8개로 10위를 기록해 아시아의 체면을 세웠다.

려 주목을 끌었다. 김광진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이 주재한 민관협의회의는 매일 두차례 모여 미술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사업방안을 논의하는 등 명실상부한 미술도시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미술도시' 프로젝트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하부구조'인 미술도시를 표방하고 나선 건 오히려 도시의 위상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빈약한 지역 미술생태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미술도시를 운운하는 건 광주비엔날레 개막(4월7일)을 앞둔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쓴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이날 '미술도시' 선언을 할 예정이

## '미술도시',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들 가운데 홍콩의 선전이 눈에 띈다. 지난 2015년 세계적인 온라인 미술플랫폼 '아트시'(ArtSY)가 발표한 '세계의 15대 미술도시'에도 뽑힌 홍콩은 초대형 복합단지인 '서구룡 문화지구'에 세계적인 현대미술관 'M+' 건립에 이어 2013년부터 아트바젤을 유치해 일약 국제미술 시장의 메카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미술도시를 내걸고 도시 브랜딩에 올인하는 곳이 있다. 영화의 도시 부산이다. 지난해 4일간 열린 부산아트페어는 210여 명의 매출과 관람객 12만 명을 기록해 서울에 이어 한국 미술시장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악조건에도 무려 260억 원의 판매고를 올려 유명 갤러리들이 앞다투어 부산에 분관을 개설했다. 이쯤이면 '미술도시'에 욕심낼 만하다.

있던 강기정 시장이 '내용이 없다'며 불참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했던 '미술도시광주 선언'은 연기됐다.

사실, 광주의 미술인프라는 열악하기 그지 없다. 현재 한국화협회에 가입된 169개 회원사 가운데 광주지역 화가는 고작 2곳으로, 서울 124개, 부산 19개, 대구 15개와 비교가 안된다. 또한 지난해 열린 광주아트페어는 4일간 관람객 3만2000여 명, 매출 22억 3000만원에 그쳐 '미술불모지'라는 오명을 얻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의 '민낯'을 본 외지 갤러리들은 두번 다시 광주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말 보다 실천이다. 아시아문화수도,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등 광주를 상징하는 타이틀은 많지만 이를 통해 도시를 업그레이드 하는 브랜딩은 미미하다. 그런데 이런 '미술도시'라니...채상,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지난달 23일 광주에서도 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광주미술협회 등 12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미술 도시 광주 민관협의 회의'가 열

## ACC, 아시아컬처마켓 참가자 모집

11일까지 35개팀

굿즈, 체험, 식품, 공예품 등... 위는 아시아컬처마켓 모집 분야로 '아시아 문화'와 '개인 맞춤형(퍼스널) 문화상품' 관련 창작자는 신청 가능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5월 개최하는 아시아컬처마켓에 참여할 문화상품 창작자 35개팀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11일까지이며 총 35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신규 창작자에게는 장비를 비롯해 디자인, 브랜딩, 장비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담: 도시를 담다'라는 주제로 5월19~20일

ACC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아시아컬처마켓은 ACC재단만의 특색있는 플리마켓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컬처마켓에서는 아시아 문화와 도시적 주제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퍼스널) 아시아 문화상품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살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 또는 재단 누리집 참조. ACC재단 김선숙 사장은 "다채롭고 흥미로운 아시아컬처를 느낄 수 있는 이번 마켓은 지역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와 맞물린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음악 열정 남기고...가수 현미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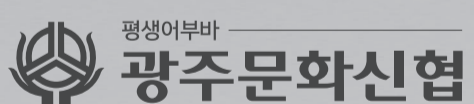
자택서 쓰러져...팬클럽 회장 발견  
향년 85세...최근까지 입담 과시  
1962년 '밤안개'로 큰 인기  
"이 다 빠질때까지 노래" 의욕



현미는 이 같은 아픈 경험을 계기로 지난 2020년에는 이산가족 고향체험 VR(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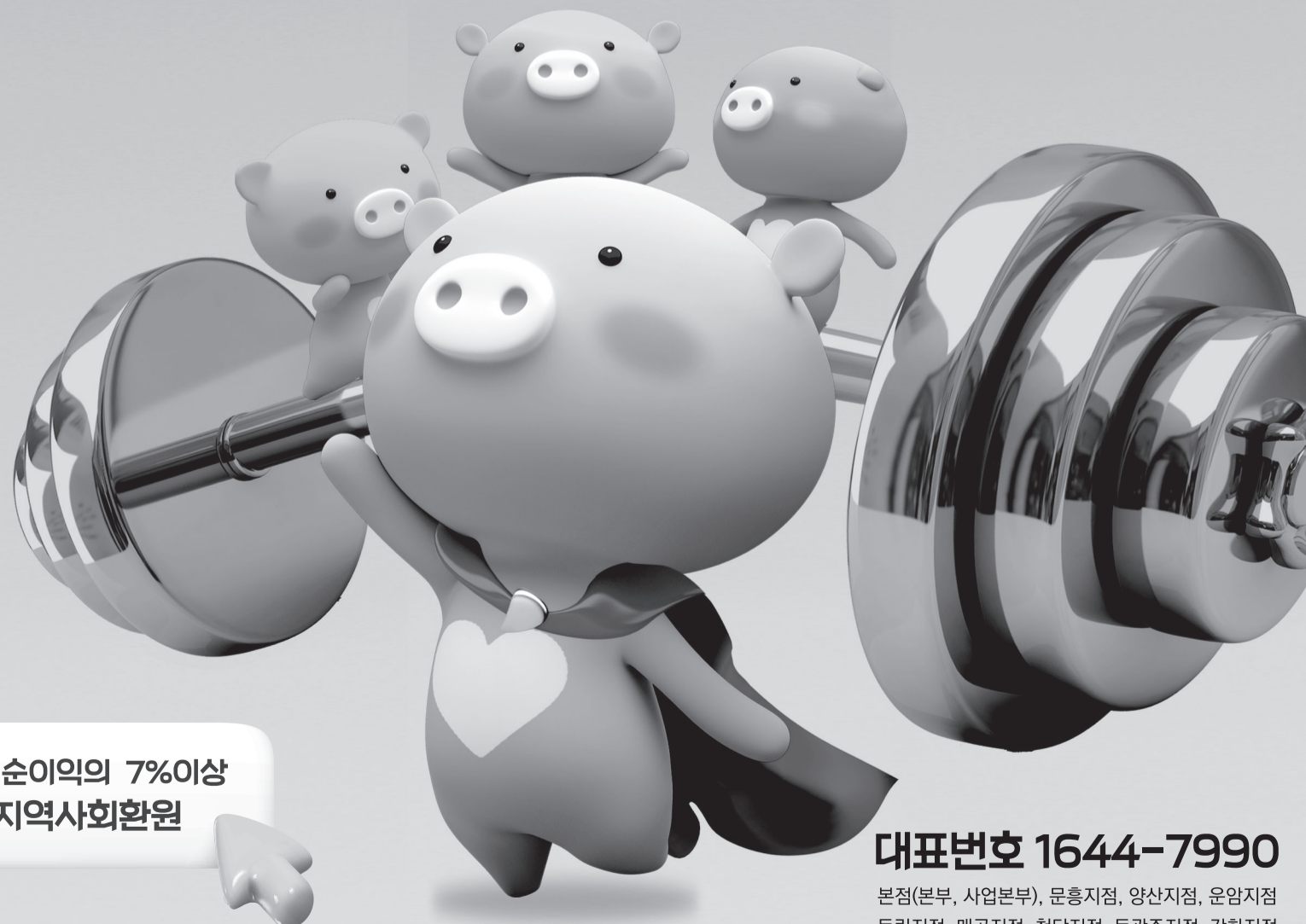
가수 현미(본명 김명선·사진)가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5세.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 김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팬클럽 회장 김모(7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미는 지난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나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향인 평양에서 거주했다. 1·4 후퇴가 있을 당시 평안남도 강동도에 있는 외가로 피난을 갔다. 이 과정에서 어린 두 동생과 헤어졌다가 60여년이 지난 뒤에서야 동생들과 평양에서 재회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로 스무살 때인 지난 1957년 그 당시 음악인들이 으레 그랬던 것처럼 미8군 무대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칼춤 무용수로 무대에 올랐지만, 일정을 핑크 낸 어느 여가수의 대타로 마이크를 잡으면서 가수가 됐다. 현미는 이때부터 그를 눈여겨본 작곡가 고(故) 이봉조와 3년간 연애했던 뒤 결혼했다. 현미는 1962년 발표한 '밤안개'로 큰 인기를 누렸고 남편 이봉조와 콤피니 이뤘던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 없이' '몽땅 내 사랑' '무작정 좋았어요' 등 연이어 히트곡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2007년 데뷔 50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80년이든 90년이든 이가 확 빠질 때까지 노래할 것"이라며 "은퇴는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할 것이다. 멋지고 멋있게 사라지는 게 참 모습"이라고 음악 활동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고인의 지병 여부와 신고자인 팬클럽 회장과 유족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빈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